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이채원*

차례

1. 서론
2. 남성작가의 탈근대 '여성성' 지향의 진실과 환상 - 황석영
 - 2.1. 젠더 이분법에 고착된 가치 지향
 - 2.2. 중핵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이름
3. 여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이 형성하는 다양한 젠더 지평
 - 3.1. 변주되어 계속되는 후일담 서사 - 공지영
 - 3.2. 후일담 서술 양식의 다양화
: 폭력과 젠더, 혁명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지성적 고찰-최윤
4. 결론

〈국문초록〉

한국현대사에서 1980년대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과 민주화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으며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와 운동권 내에서도 만연했던 남성중심성은 혁명의 깃발 아래서도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80년대 지성의 흐름을 주도했던 저항담론들조차 계급 갈등을 우선시하고 젠더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본고에서는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후일담 소설을 논한다. 시위현장과 토론장과 산업현장과 감옥에서 분명 존재했던 여성인물들이 남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후일담 소설의 보다 다양한 젠더 지평을 분

* 서강대학교 여성학 연계전공 대우교수

석한다. 80년대에서 조금 거리를 둔 시점인 2000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장편 『오래된 정원』의 사유의 시발점은 80년 5월 광주였으나 이 소설은 20세기 전반에 걸친 남성중심 근대성의 폭력성을 반성하고 21세기의 가치를 ‘자연’으로 상정된 ‘여성성’에서 찾으려 한다. ‘남성성’을 부정하고 ‘여성성’을 지향하는 이 소설은 사실상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 고착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실제로 80년대에 분투했던 다양한 여성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해버린다. 그 하나의 이미지는 남성판타지의 일종인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지나치게 경도된 여성이며, 독재 권력의 폭력에 저항했으나 그 자신도 ‘남성’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이율배반적인 남성 인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여성상의 이미지이다. 모성에 대한 집착 역시 ‘모성’ 또한 이데올로기임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후일담 소설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작가인 공지영의 소설들에서 후일담의 서사구조는 변주되어 반복된다. 80년대는 혁명에 대한 낭만적 낙관과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동료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던 시기였고 그 시대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공지영 텍스트의 서술태도이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남성들이 비겁함과 안일함과 자조와 타협하거나 일부 남성들이 제도권 정치권력에 편입했을 때 끝까지 현장에서 이름 없는 시민 활동가로 자리를 지킨 여성들을 증언한다. 노동현장에서 빈곤과 질병과 싸우며 마지막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동지들에게 헌신했던 여성인물을 형상화 한 공지영의 서사는 계급과 젠더 문제를 다 담으려 했다. 이는 공지영이, 계급과 이념에만 집중했던 황석영과 달라지는 지점이다. 남성들의 역사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감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여성적’인 ‘감상성’이 혁명과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는 공지영의 텍스트 역시 젠더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겁하고 나약하며 때로 폭력적인 남성인물들을 연민하고 포용하는 여성인물들의 인물형상화가 변주되어 반복되는 것도 그러하다. 다른 한편, 80년 5월 광주를 묘사한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윤

의 텍스트는 다른 후일담 서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서술기법으로 그 시대를 형상화 한다. 시적이고 암시적인 서술방식과 분열증적 인물화는 그 시대의 폭력을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수사적 효과를 가지며 국가의 폭력과 개인의 폭력, '남성성'과 폭력에 대한 중층적인 사유까지 나아간다. 전형적인 후일담 서사구조를 가지는 『회색 눈사람』(1992)은 차갑게 승화된 지적인 서술태도도 돋보이지만, 삭제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기 연민이나 감상성을 제거한 채 복원했다는 의미에 더해서 여성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연대감을 혁명과 연결시키는 현대성과 진보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후일담 소설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젠더 지평을 펼쳤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 후일담, 젠더 지평, 아버지의 이름, 폭력의 연쇄, 혁명

1. 서론

한국소설사에서 '후일담'이라는 장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를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를 낭만적으로 회고하기 위해서이든, 회한을 토로하기 위해서이든, 잊지 않으려는 다짐에서든, 그 시대와 단절하기 위해서이든 후일담의 구심점은 1980년대이다. 현재까지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80년대는 한국현대사에서 신화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시발점은 80년 5월 광주이다. 광주민주화항쟁과 1980년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소설들은 80년대 후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해서 9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¹⁾

1)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장르로서의 '후일담 소설'을 지칭할 때, 그 분류 지표에는 1980년대의 국가폭력과 이에 대항한 저항과 좌절들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이 있다. 후일담 소설은 80년대를 힘겹게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과 회한을 담게 된다. 그런데 1990년대에 후일담 소설이 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광주와 80년대는 후일담 소설에서 반성적 사유의 원천으로서 다루어지거나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상품의 소재가 되었다.²⁾ ‘후일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는데,³⁾ 본 논문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후일담 소설들을 논하고자 한다. 젠더정치학의 시각에서 후일담 소설을 논한 유의미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 논문들은, 거대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했지만 삭제되었거나 왜곡된 여성주체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으며 80년대 운동권의 가부장성과 남성중심주의를 지적했

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9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한 몫 했다고 여겨진다. 실패한 혁명과 불완전한 민주화 성취의 바탕 위에서 개인과 탈중심과 신자유주의로 향해가면서도 전근대와 근대와 탈근대가 혼란된 90년대는 앞선 80년대를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각을 내포한다. 그 속에서 1980년대를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문학적 시도가 ‘후일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후일담 소설로서 가장 많이 논의된 작품은 공지영의 『고등어』(1994)이다. 공지영은 등단작인 『동트는 새벽』(1988)에서부터 80년대의 정체성을 체화한 작가이다. 심지어 80년대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소설 『도가니』(2009)에서조차 후일담 문학의 형식과 80년대의 정서가 드러난다.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1992) 역시 후일담 소설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80년 광주에서의 사건을 시적인 언어와 독특한 구성으로 형상화 한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윤은 단편 『회색눈사람』(1992)에서 짧지만 강렬하고 지적인 후일담 소설의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 2) 2000년대에 들어서 발표된 후일담 소설로는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2000)과 방현석의 『랩스터를 먹는 시간』(2003)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80년 5월 광주, 또는 80년대를 다룬 영화는 『꽃잎』(1996), 『박하사탕』(1999), 『오래된 정원』(2006), 『화려한 휴가』(2007),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1987』(2017) 등이 있다.
- 3) 후일담의 서사양식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한 학술논문으로는 권경미, 『지식인 주체의 생존 현실 인식과 저항의 서사-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7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김지미,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토리텔링 전략』, 『대중서사연구』 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박은태, 『1990년대 후일담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박은태·고현철, 『공지영과 김영하의 후일담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44집, 한국문학회, 2006; 전해림, 『공간의 의미와 시대의 재해석-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허영재, 『독일의 신주관성 문학과 한국의 후일담 문학-페터 슈나이더의 『렌즈』와 공지영 작품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16권 2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8 등이 있다.

다.4) 분명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는 혁명의 깃발 아래서도 공고하게 유지되었으며, 80년대 지식의 흐름을 주도했던 저항담론들조차 ‘계급’ 갈등을 우선시하고 젠더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혁명은 여성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⁵⁾이었다면 이는 기득권에 저항적이었던 남성 운동가들이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은 움켜쥐려 했던 이중성으로 인해 때로 노골적이고 때로 은근한 배제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파생된 결과이다. “여성들은 민족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지만 그것이 민족민주운동의 여성주의 강화로 귀결되지는 않았”⁶⁾을뿐만 아니라 민족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매우 인색하게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뛰어 넘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⁷⁾ 그런 한편 자유와 평등의 가치 속에서 페미니즘의 부상(浮上)은 필연적인 것이었기에 1980년대는 한국사회에서 여성해방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4)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 -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권보드레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힌 여성의 서사들』,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7 등.

5)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6쪽.

6)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7, 423쪽.

7) 기실 1980년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적 봉기의 도화선이 된 것은 유신의 억압 속에서 민주적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한 섬유나 의류 분야의 여성노동자였다. 또한 많은 여대생, 여성지식인들은 대안적 여성 주체성을 추구하며 중산층 가족을 떠나 공단으로 뛰어들거나 사회단체에 속해 시민운동을 조직했다. 관련 여성 단체와 구별되는 반체제적 여성운동이 성장해 중산층 여성의 자기 각성을 유도하며 초남성적인 폭력국가에 대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한 것도 1980년대였다.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3쪽.

90년대가 여성작가들의 시대가 된 것은 80년대에 부상하기 시작한 페미니즘 담론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남성작가의 후일담 소설과 달리 여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은, 작가에 따라 페미니즘에 접근하는 방식과 표현양식이 다르다고 해도, 젠더정치학의 함의를 내포하게 된다.

한편, 80년대를 거부하던 80년대에 집착하던, 80년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90년대를 보내고 한 세기를 통과하면서 90년대와는 다른 후일담 소설들이 등장했다. 특히 20세기말에 기획되고 21세기 초에 출간된 『오래된 정원』⁸⁾은 1990년대에 발표된 후일담 소설들보다는 80년대로부터 좀 더 떨어진 거리에서 좀 더 관조적인 시야를 확보하여 80년대를 조망하고 회고하며 성찰한다. 80년대로부터 일정 기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오래된 정원』에 대한 비평적 평가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현실과 소설들에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려는 문학적 작업의 결과물”⁹⁾이라는 언술로 집약된다. 『오래된 정원』에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희생되었던 ‘개인’과 ‘일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20세기의 ‘남성성’을 반성하고 소위 ‘여성적’ 가치를 긍정하는 서술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태도와 가치지향이 기존 가부장적 남성중심성 속의 남성판타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오래된 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의와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황석영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2000)과 공지영의 장편

8) 황석영은 베를린 망명시절, 작곡가 윤이상 선생 택에서 떠올랐던 구상이 이 작품의 기초가 되었다고 밝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 사회주의가 일제히 몰락했을 때 나는 이십세기가 끝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러한 이행을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이제는 시대나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물결 속에 휩쓸리며 헤엄쳐가던 하찮고 가냘픈 개인의 나날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도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황석영, 『오래된 정원』 하권, 창비, 2000, 317~318쪽.

9) 박은태, 『1990년대 후일담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21쪽.

소설 『고등어』(1994),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와 최윤의 단편소설 『회색눈사람』(1992)을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 분석할 『오래된 정원』은 80년 5월 광주를 경험하고, 방북 후에 독일에 체류하며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직접 목격하고 귀국 후, 방북으로 인한 수감까지 체험한 황석영이 한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80년대와 90년대를 조망하고 21세기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서사이다. 이 소설의 여러 미덕과는 별개로 이 소설이 젠더 이분법과 남성판타지를 고수하는 ‘남성의 서사’임을 밝히는 것은 남성작가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남성적’ 독해의 한계를 논파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3장에서 논할 공지영은 후일담 소설에 관한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작가이고,¹⁰⁾ 『고등어』는 대표적인 후일담 소설로서 거론되어왔다. 또한 공지영은 페미니즘 작가로서도 언급된다. 80년대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로¹¹⁾ 비평되기도 했던 『고등어』를¹²⁾ 젠더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함으로써 후일담 소설의 의미망이 보다

10) 공지영은 1988년 『창작과 비평』에 「동트는 새벽」으로 데뷔해 운동권 여대생의 통과제를 그린 『더 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1989)로 작가활동을 본격화했다. 1990년대에는 단편집 『인간에 대한 예의』(1994),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1999), 장편 『고등어』(1994) 등 여러 후일담 소설을 발표하며 386세대의 대표 작가가 되어 왔다. 그녀는 “83년의 어느 가을날”, “85년의 광주 망월동” 같은 식으로 자신의 소설을 19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증언의 공간으로 만드는 등 혁명세대로서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을 보여 준다. 김은하, 앞의 책, 315쪽.

11) 공지영과 김영하가 80년대와 90년대를 묘사하는 양상은 유사하지만 묘사된 각 시대에 대한 태도와 시선은 상반된 것으로 논한 박은태와 고현철은 “공지영이 1980년대 공동체에서 회생과 신뢰의 위대함을 보고 있다면, 김영하는 희망의 이름으로 자행된 억압과 폭력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은태·고현철, 「공지영과 김영하의 후일담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44집, 한국문학회, 2006, 466쪽.

12) 『고등어』의 주요 인물인 은림과 명우에게 1990년대는 소금에 절은 고등어가 색이 바래서 누워 있는 시장의 좌판이라면, 1980년대는 등이 푸른 고등어가 맘껏 자유의 유희를 펼치는 바다이다. 위의 논문, 468쪽.

김은하는, 『고등어』를 “지난 연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주관적 감상이 지나치다 못해 신과조로 전락한다”고 평했던 정문순의 글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분명 (...) 과잉정치화 된 세대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김은하, 앞의 논문, 56쪽.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공지영의 장편소설 『도가니』(2009)를 대비적으로 논함으로써 변주되어 계속되는 공지영의 후일담 서사구조를 밝힐 것이다. 이에 더해서 여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들이 구축한 젠더 지평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와 최윤의 단편소설 『회색신사람』을 분석하고 논할 것이다. 공지영과 최윤은 1988년에 등단한 여성작가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작가 모두 후일담 소설을 썼지만 서술방식이 확연하게 다르고 그로 인해 텍스트의 분위기도 많이 다르다. 인물형상화 방식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저변에는 80년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80년대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젠더문제를 인식하는 시각과 젠더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다고 보인다. 이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고에서는 1980년대를 해석하고 의미부여하며 미래의 전망을 제시함에 있어서 남성작가와 여성작가의 현실인식과 지향점의 유사성과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로 인해 어떤 젠더 지평이 구축되는지 밝힐 것이다. 또한 공지영의 소설들에서 변주되어 반복되는 후일담의 서사구조 속에서 계급과 젠더의 문제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분석하고, 80년대를 젠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그 방식과 양상과 태도가 공지영과는 다른 여성작가인 최윤의 소설들을 대비적으로 분석하여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을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조망하려 한다.

2. 남성작가의 탈근대 '여성성' 지향의 진실과 환상 - 황석영

2.1. 젠더 이분법에 고착된 가치 지향

『오래된 정원』은 총 두 권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이며 스토리 시간은 20여 년에 달한다. 감옥 생활의 세부적인 묘사는 저자의 직접 체험에 의

해서 가능했으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의 외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의 공기와 사람들의 복잡한 심경을 섬세하게 전달한 것도 작가의 직접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 『오래된 정원』은 20세기 말에 80년대와 90년대를 모두 돌아보는 회고적 서술양상을 띠고 있지만 역시 그 근원은 80년 5월 광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전향 거부로 인해, 사람 하나 죽이지 않고도 감옥에서 18년을 살다 출소한 오현우가 가장 먼저 돌이켜 보는 것도 80년 5월 광주이다.

광주, 그러나 이제는 저 울렁거림 따위는 없다. 전에는 그 도시의 이름만 떠올려도 마치 글자 주위에 불의 링을 달아놓은 것처럼 뜨거운 불길의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무슨 특산물로 유명해진 관광지 이름처럼 들린다. 몇 년 만인가.....그들의 얼굴이나 기억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는 저들은 모두 옛되고 어설피고 가난한 젊은이들이었다. 죽은 이들은 더욱 영원히 젊다.¹³⁾

『오래된 정원』의 중심인물은 오현우와 한윤희이며 두 인물 모두 서술주체로서 시선과 목소리를 부여받았다. 이는 두 사람의 사랑의 서사¹⁴⁾가 소설 『오래된 정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현우가 감옥에 있었던 18년의 시간들 동안 감옥 외부 세계의 변화를 전달하기 위해 오현우가 아닌 다른 한 명의 초점화와 서술적 목소리가 더 필요했다. 『오래된 정원』의 서사는 한윤희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오현우가 읽고 다시 오현우의 회고적 시각에서 서술되는 구조를 취한다. 지금까지 『오래된 정원』을 논한 비평과 논문들¹⁵⁾은 오현우와 한윤희의 관계를

13) 황석영, 『오래된 정원』 상권, 창비, 2000, 34쪽.

14) 『오래된 정원』을 ‘사랑의 서사’로 해석하고 논한 연구들은, 고인환, 『경계를 응시하는 사랑의 서사-황석영의 『오래된 정원』』, 『결핍, 글쓰기의 기원』, 청동거울, 2003; 김치수, 『이념과 사랑-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 『문학과 사회』 겨울호, 문학과지성사, 2003; 오생근, 『『오래된 정원』과 시간을 이기는 사랑의 힘』,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비, 2003 등이 있다.

언급하면서도 오현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고에서는 한윤희에게 초점을 맞추려 한다. 작가 황석영은 한윤희의 서술을 통해서 오현우가 추구했던 가치뿐만 아니라, (오현우가 경시했던) 일상과 생활과 창조 등의 가치를 추구한 한윤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새로운 세기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새로운 세기의 가치는 소위 ‘여성성’ 특히 ‘모성’에 기반을 둔 삶에 대한 긍정과 생명에 대한 긍정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살림의 단순한 일상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요.¹⁶⁾

그래 나중에 너는 불꽃이 되어 시멘트 포장된 공장 앞 네거리에서 사라졌지만 네 마지막 편지는 남아 있다. 미경아, 이제 나는 먼길을 돌아와 너에게 뒤늦은 대답을 할게. 사람 사는 게 뭐니, 결국은 삶의 절반은 세끼 밥먹는 데로부터 시작되었지.....미경아 예술과 혁명이 가는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처음 시작했던 삶으로 되돌리려는 안간힘이야. 지상에서 비롯된 새벽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상에 세워진 한낮의 모든 허접쓰레기 같은 제도를 부숴버리는 일. 나는 다시 먹을 것으로 돌아가마. 아름다운 젊음이 예수가 처음에 출발했던 이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이었겠어? 땅에서 가장 소박하고 욕심없는 식사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상의 양식으로서.¹⁷⁾

15) 강용훈, 『현대문학과 새로운 담론 ; 황석영 장편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의미 - 『장길산』과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권경미, 『지식인 주체의 생존 현실 인식과 저항의 서사 -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2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방민호, 『모성적 사랑의 시공을 위하여 - 황석영 『오래된 정원』론』, 『남함 아래의 침묵』, 소명출판, 2001; 전해립, 『공간의 의미와 시대의 재해석-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등.

16) 황석영, 앞의 책, 상권, 233쪽.

17) 황석영, 앞의 책, 하권, 189쪽.

근대는 수컷들의 삭막하고 쓸쓸한 갈등과 번민의 시대였어요.¹⁸⁾

남자들이 같은 남자들을 죽인 전쟁의 세기를 보내면서 내면적으로
는 그와 함께 살해한 모성을 생각해요. 나도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죽였어요. 당신을 앗아간 것들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
들었어요. 나는 이 위대한 자연을 회복하고야 말 것입니다.¹⁹⁾

‘미경’은 “제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가를 배”²⁰⁾우는 법대생으로서 공장에 위장 취업한 ‘학출 노동자’이다. 미경이 공장건물 옥상에서 분신하고 투신하여 젊은 생을 마감한 이후 윤희는 미경의 편지에 대한 늦은 답장을 쓴다. 윤희는 사적인 소유를 떨쳐낸 소규모 공동체 삶을 꿈꾸고 있고 사적 소유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제도들을 ‘허접쓰레기’로 규정한다. 여기서 오현우 뿐만 아니라 한윤희 역시 작가 황석영의 페르소나임을 알 수 있다. 즉 “젊은 날의 사회주의 사상의 휴머니즘적 ‘핵심’을 보존하면서”²¹⁾ ‘갈등’과 ‘전쟁’과 ‘죽임’의 세기에 운동권 역시 한 몫 했음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근대의 도구적 이성애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에코 페미니즘적인 상상력도 엿보인다. ‘시대’라는 거대서사에 의해 억압된 개인을 바라보려는 태도 역시 80년대에 대한 반성적 사유인데 특히 한윤희와 송영태와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정에서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다. 송영태는 평양을 거쳐 한윤희가 있는 독일로 왔다. 역시 작가의 개인사가 중첩되는 지점이다. 송영태는 계속 시대의 주체로 대화하고 싶어했지만 한윤희는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여정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무엇보다 미경을 외면했던 영태를 추궁했을 때 “그땐 그런 시대였”다는 송영태의 말에 한윤희는 시절 탓 하지 말라고 말한다. 즉 시대와 이념의

18) 황석영, 앞의 책, 하권, 304쪽.

19) 황석영, 앞의 책, 하권, 306쪽.

20) 황석영, 앞의 책, 하권, 48쪽.

21)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211쪽.

과잉 속에서 억눌린 개인과 감성을 복원하려는 것이며 ‘남성성’의 세기와 작별하고 ‘여성성(모성)’의 세기로 향해야 한다는 가치지향을 “위대한 자연을 회복하고자 말 것”이라는 다짐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가치지향이 억압된 감성과 자연의 회복, 궁극적으로는 ‘여성성’의 회복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기존연구들 역시 텍스트 전면에 드러난 이러한 서술태도를 충실하게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전형적인 젠더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성과 정신과 문명과 서양을 ‘남성성’으로 상징하고 감성과 신체와 자연과 동양을 ‘여성성’으로 상징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전자가 후자를 지배해야 한다는 담론이 우세했던 시대로부터 후자를 중시하는 담론의 시대로 바뀐다고 해도 이 역시 기본적인 젠더 이분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²²⁾ ‘감성’과 ‘신체’와 ‘자연’과 ‘동양’이 ‘여성성’이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으며 이들이 생물학적 여성과 연결될 필연적인 이유는 더구나 없다. 게다가 모성 또한 이데올로기임도 간과하고 있다.²³⁾ 무엇보다 오현우의 도피생활을 도와주었던 3개월간의 짧은 인연과 18년 동안 ‘안’에 있는 오현우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밖’에 있는 한윤희의 삶과 선택은 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애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남성판타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인데 『오래된 정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해서 분석하려 한다.

- 22) 심지어 젠더 이분법에 의한 기존 위계질서를 전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적’ 독해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혁명이나 운동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었으나 도피에 실패하고 검거되어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년의 긴 수감기간을 채운 오현우를 “민주화 운동의 영웅”으로 명명하고 한윤희를 “결교 영웅은 될 수 없으나 오현우를 대신하다시피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관여해야 했던 소시민 한윤희”(전해립, 『공간의 의미와 시대의 재해석 -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35쪽.)로 호명하는 방식은 ‘영웅’과 ‘소시민’이라는 위계hierarchy를 기존 젠더 이분법에 고착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3) 모성이 자연이 아닌 이데올로기이며 모성신화가 가부장제를 굳건하게 지탱해왔음은 아드리안 리치, 엘리자베스 바탱테르, 슬라미스 피어어스톤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2.2. 중핵이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이름

한윤희의 기록에는 ‘아버지’가 과도할 만큼 많이 등장한다. 한윤희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의 지식인 청년이었으며 동경 유학 시절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고 해방 후 빨치산의 이력이 있으나 전향서를 쓰고 폐인이 되어 방에서 술만 마시다가 죽었다. 생계는 모두 한윤희의 어머니 몫이었다. 어린 시절 한윤희는 아버지를 한때 증오했으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다. 오현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현우와 만나기 이전에 한윤희가 사랑했던 선배화가와의 관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선망과 연민에서 비롯되었음이 상세하게 고백된다. 즉 한윤희의 사랑과 인고와 희생의 삶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 안에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한윤희의 집착은 ‘아버지의 이름’이 한윤희의 전 생애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수배 중이었던 오현우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 오현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한윤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 운동권 아니에요. 광주 비디오 봤어요, 엔에치케이 판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지만요.²⁴⁾ ①

당신의 첫인상은 꼭 젊은날의 아버지를 연상시켰어요. 나는 아버지의 청춘이 깃들인 사진 두 장을 간직하고 있어요.²⁵⁾ ②

아, 고생문이 환한 인연이었어. 그는 작년에 여길 떠나자마자 체포됐어. 아마 오랫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지두 몰라. 그런데 난 그의 아내를 자청하려고 해. 왜냐구? 그에게는 나밖엔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넌 아버지의 마지막 해를 잘 모를거야. 나는 아버지와 거의 날마다 하루를

24) 황석영, 앞의 책, 상권, 58쪽.

25) 황석영, 앞의 책, 상권, 83쪽.

보내곤 했어.²⁶⁾ ③

그건 이를테면 누린내 비슷하기도 하고 오래 묵은 선땀내 같기도 하고 거기에 간장이 섞인 듯한 남자들의 고독에 찌든 내음이었어요..... 나는 그를 내 가슴에 안아주었어요. 아버지와 작별하던 생각이 나서 눈물을 쫄끔거렸구요.....내가 사랑한 건 아버지의 빛나는 젊은 시절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었을 거예요.²⁷⁾ ④ (번호, 인용자)

①은 한윤희가 오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한 말이고, ②는 한윤희가 오현우에게 남긴 편지글 중 일부이다. ③은 한윤희가 동생 정희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이다. “고생문이 훤한” 인고와 희생의 인연과 사랑을 감당하겠다는 이유의 근원에 아버지가 있음을 반복해서 고백한다. 그런데 한윤희의 이런 태도는 ④에서 묘사되었듯이 오현우를 만나기 전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배화가와의 관계에서 이미 선행되었다. 한윤희는 오현우에게 남긴 글에서 이런 사연도 전하면서 역시 아버지를 언급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나 선배화가나 오현우가 늘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패배자/약자이거나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인 그들은 기득권자였고 때로 폭력적이었으며 강자의 위치였고 표리부동한 변절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윤희는 그들의 폭력성에까지 연민을 느끼며 기꺼이 희생자가 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한윤희가 그토록 연민했던 선배화가는 화단에서 성공하고 부잣집 딸과 약혼하여 유학을 떠났다. 도피생활 중 오현우가 광주에 다녀온 날 밤, 오현우가 마치 강간하듯이 한윤희에게 폭력적인 정사를 시도했을 때에도 한윤희는 “나는 어쩐지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고백한다. “아버지나 당신이 선택했던 그 시대의 가치는” 자신과 함께 하는 오현우의 도피의 시간을 “기만적인 자유에 머물게 하는 아주 하찮은 소시민적

26) 황석영, 앞의 책, 상권, 141쪽.

27) 황석영, 앞의 책, 상권, 133~134쪽.

영역'이라고 깔보게 했”²⁸⁾”다는 것이 자신의 눈물에 대한 한윤희의 해석이다. 한윤희가 어렸을 때, 방에서 술만 마시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했지만, 한윤희의 아버지는 “말만한 년들이 들썩이나 있으면서”²⁹⁾ 딸들이 저녁을 늦게 짓는다고 호통을 친다. 한윤희는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 저항하면서도 그들의 일은 역사적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폭력성이 그들이 저항했던 독재권력과 닮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분노하지 않고 연민과 희생이 자신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작가 황석영이 세기말을 보내면서 일상과 개인의 가치를 긍정하게 되었지만, 일상과 개인은 여전히 ‘사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은 ‘여성성’의 영역이라는 젠더 이분법에 의거한 성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한윤희는 자신의 임신을 오현우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면서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일말고도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에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³⁰⁾다고 말한다. 또한 시베리아 한 복판에서 한윤희는 ‘전쟁과 평화’ 속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한다. 그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혁명가의 아내였다. 그들은 “형리와 심판관들에게서 갖은 모욕과 경멸을 당하며 세탁부나 허드렛일로 남편의 형기가 끝나기를 기다렸”³¹⁾다. 광산의 갱 속에 있는 남편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에 입을 맞춘 여인의 이야기가 한윤희로부터 발화될 때 한윤희는 그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여기서 한윤희는 80년대 운동권 주변에 있었던 실제 여성의 초상(肖像)이라기보다는 작가 황석영의 판타지라고 생각된다. 정확히 말한다면 남성판타지이다. 거대폭력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성에까지 연민을 느끼며, 자신을 배제하는 ‘아버지의 이름’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결국 자학이 될 수

28) 황석영, 앞의 책, 상권, 225쪽.

29) 황석영, 앞의 책, 상권, 90쪽.

30) 황석영, 앞의 책, 상권, 144쪽.

31) 황석영, 앞의 책, 하권, 294쪽.

있다. 실제로는, 80년대 운동권에는 혁명가 남편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에 입을 맞추는 아내보다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여성노동자들이 훨씬 많았고, 노동자의 아내 역시 노동자였다. 또한 ‘미경’ 같은 학출 노동자도 많았다. 이들은 계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젠더에 의해서 이중으로 억압 받는 이들이었다. 1986년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권인숙이 공단에 위장 취업한 후 부친경찰서 문귀동 경사에게 성고문 당한 사건은 계급에 의한 폭력보다 젠더에 의한 폭력이 더 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윤희의 목소리 뒤에 내포저자는 견고한 젠더 이분법에 근거한 성별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며 여전히 시대착오적이다. 어머니의 품처럼 하염없이 품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여성상을 그리는 남성판타지를 보여준다. 이후 황석영이 발표한 장편소설 『바리데기』(2007) 역시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배제한 아버지의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 고통과 역경과 희생을 감내하는 여성서사이며 이는 ‘여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성 작가의 남성판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윤희가 오현우를 회고하며 발화한 “평등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계급투쟁”³²⁾은 ‘형제들의 공화국’을 위한 것이며 젠더에 대한 문제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한윤희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송영태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설파한다. “다들 아버지 중심으로 버티고 있”³³⁾다는 한윤희의 말은, “아버지는 어머니의 짐이 아니었”³⁴⁾느냐는 윤희의 질문에 “가장이 있는 집은 집안 공기두 다른 법”³⁴⁾이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유사하게 먼저 발화되었다. 이때 ‘아버지의 이름’에 고착되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남성판타지에 의해 전유된 것이다.

18년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오현우는 한윤희와 함께 지냈던 갈피로 간다. 한윤희는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오현우는 윤희가 낳은 딸 ‘은결’의 존재를 알게 된다.

32) 황석영, 앞의 책, 상권, 216쪽.

33) 황석영, 앞의 책, 하권, 206쪽.

34) 황석영, 앞의 책, 하권, 25쪽.

은결이가 팔십이년생이라면 지금은 열여덟살 먹은 처녀가 되었겠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줄 알았던 이 세상에 윤희는 그 아이를 남겼다..... 윤희는 은결이와 내가 이승에서 지어갈 부너지간의 애증을 걱정했는지도 모른다.³⁵⁾

그러나 은결이 한윤희와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걱정은 젠더 이분법과 ‘아버지의 이름’을 전제로 했기에 나온 발상이다. 이는 80년대와 세기말의 정서에서 젠더의 문제를 삭제한 작가의 한계이기도 하다. “혁명은 비록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할지라도 사회적 삶의 내밀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역할을 해체하지 못했다”³⁶⁾기에 ‘팔십 이년 생 은결’은 한윤희와는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그 싸움은 독재정권을 향한 투쟁보다 더 근본적인 혁명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이름’에 집착하기보다는 상징적 아버지 죽이기를 감내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이는 80년대와 90년대까지를 폭넓게 조망하며 모성을 회복하고 일상과 개인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오래된 정원』의 서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젠더 이분법과 성 역할 자체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팔십 이년 생 은결’에게 남겨진 과제와 싸움은 ‘아버지의 이름’에 밀착하여 정치권력에 저항한 항거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부하기에 더 불온하고 래디컬한(근본적이며 급진적인) 일상의 정치학을 구축할 것이다. 이는 딸의 모습을 상상하는 ‘아버지’ 오현우가 예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남성의 세기인 20세기를 반성하며 소위 ‘여성성’을 추구하려는 후일담의 전망 속에서도 굳건한 젠더 이분법과 ‘여성의 미덕’에 대한 남성판타지는 기존의 후일담 소설과 갈라지는 듯 다시 만나는 지점이며 『오래된 정원』을 ‘근대성에 대한 반성’으로 규정한 선행연구들 역시 이러한 젠더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35) 황석영, 앞의 책, 상권, 159~160쪽.

36) 김은하, 『386세대의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6쪽.

3. 여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이 형성하는 다양한 젠더 지평

3.1. 번주되어 계속되는 후일담 서사-공지영

공지영은 후일담 소설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작가이다. 공지영에게 80년대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혁명에 대한 낭만적 이상과 강한 동지애가 공기처럼 머물렀던 시대였다. 그 시대를 작가 공지영은 끝없이 기억하려 하고 증언하려 한다. 『고등어』(1994)는 그러한 기억의 서사/증언의 서사의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한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명우와 은림이 90년대가 되어서 7년 만에 만났을 때 했던 논쟁은 90년대 시점에서 80년대를 바라보는 두 시각을 보여주면서 작가 공지영의 글쓰기의 성격을 시사한다. 은림의 오빠이자 명우의 친구인 은철이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런 은철을 면회하고 돌아와서 명우는 지난 시절을 절망과 자조의 어투로 회상하는 현실적인 낙약함을 보이는 반면 은림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고 발화하는 데 망설임이나 회의(懷疑)가 없다.

세계의 끄트머리 한심한 나라의 학생으로 태어나서 무슨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부모들 가슴에 못을 팽, 팽 박으면서 지랄들을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세상이 왔지? 어리석었어. 하다못해 그 시간에 운전이라도 배워 두었어야지.³⁷⁾

고작 형의 회한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우리가 애썼던 날들하고 바꿀 수 있는 게 고작 운전면허예요?

아니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잊지 않는 사람들, 죽어간 친구와 미처간 친구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이들..... 그들이 곧 이 나라를

37) 공지영, 『고등어』, 웅진출판, 1994, 222~223쪽.

이끌어 가게 돼요 이제 곧 우리 세대에게서..... 그래요, 형 말대로 우리 세대를 거치느라 운전면허 하나 따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예술가가 될 거라고요. 가짜들 말구 진짜들.....그것두 권력이라구 운동하지 않는 불쌍한 친구들 주눅들게 하면서 거들먹거렸던 사람들 말구, 이제 와서 어리석었다고 그 세월 전체를 매도하는 인간들 말구, 진짜들.³⁸⁾

명우의 현실적인 나약함과 은림의 신념에 찬 우직함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에서도 각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스물여섯 살에 이미 유부녀였던 은림과 스물일곱 살의 명우는 동지애를 넘어선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고 함께 창원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같이 노동운동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스물일곱 살에 불륜이라는 명에”³⁹⁾를 감당하는 게 두려워진 명우는 ‘운동’과 ‘도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은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살아남기 위해”⁴⁰⁾ 노동자인 연속과 결혼했으나 이혼하고 이제는 그가 운동하던 시절 적대시했던 “더러운 부르주아들”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반면 은림은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현장에 남아 있는 인물이다. 외롭게 투쟁하는 집행부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파업투쟁에 함께 하다가 사산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가 90년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결핵’과 ‘영양실조’의 몸으로 다시 명우 앞에 나타난 것이다. 허구서사인 소설 속 인물이기는 해도 명우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 또는 은림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80년대에서 90년대로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오는 한국 현대사에서 실존하는 인물들이다. 노동운동은 그 양상과 정도를 달리하면서 계속되어왔고, 인권운동도 여러 양상으로 지속되어왔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순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80년대

38) 위의 책, 225쪽.

39) 위의 책, 24쪽.

40) 위의 책, 236쪽.

는 90년대 속에서 다른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운동했다⁴¹⁾고 볼 수 있다. 운동의 이력을 ‘훈장’ 삼아 제도권 정치세력 안에 편입한 사람들도 있고, 명예회복이나 금전적인 보상의 혜택을 받은 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변방에서 여러 형태의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자들과 엘리트 ‘민주화 운동’ 서사에 맞서는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⁴²⁾면 죽음을 앞둔 은림이 명우에게 “우리 이야기를 써 달라”⁴³⁾고 부탁한 것은 승리자의 이야기만 기록되고 전파되는 이 세상에서 분명 존재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려는 작가 공지영의 글쓰기의 의미를 드러낸다. 공지영의 후속 소설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 변주되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광주 인화학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청각장애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실화를 바탕으로 2009년 발표된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에서도 유사한 서사가 변주되어 반복된다. 특수학교 교사인 강인호는 대학시절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동’에 가담했으나 지금은 소시민적 삶을 꾸려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인물이다. ‘그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우하고 불의했지만 적어도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제 ‘뱃그릇’이 걸려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⁴⁴⁾ 반면 강인호의 대학 선배이자 소도시 인권센터에서 상근간사로 근무하는 서유진은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은 접었으나 세상이 자신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인물이다.⁴⁵⁾ 이런 서유진에게, ‘민중’ ‘민주’ 이런 말 하는 여자들은 ‘맛없게’ 생겼다고 말하는 지역경찰은⁴⁶⁾ 80년대 운동권 내부와 그 주변에서도 존재했을 여성혐오의 분위기를 전달한다. 『고등어』에서의 은림과 『도가

41) 박은태, 앞의 논문, 27쪽.

42) 천정환, 앞의 논문, 208쪽.

43) 공지영, 앞의 책, 280쪽.

44) 공지영, 『도가니』, 창비, 2009, 71쪽.

45) 위의 책, 301쪽.

46) 위의 책, 112쪽.

니』에서의 유진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계속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헌신적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도망치는 나약한 남성 인물들을 끝내 이해하고 용서하며 포용한다는 것이다. 명우의 자조적인 매도와 회한에 날카롭게 반응했던 은림은, 그러나, 7년 전에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명우를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한다. 유진 역시, 싸움을 포기하고 서울로 떠나버린 인호를 비난하지 않는다. 공지영의 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은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묘사되며 여성인물들은 그런 남성인물들을 비판하지만 끝내 포용하는 쪽으로 향하는 관계가 변주되어 반복된다. 이를 “용서와 관용을 통해 동지애적 연대를 회복함으로써 애정 갈등을 뛰어넘고자”⁴⁷⁾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편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지영의 젠더 구획 역시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성’을 ‘여성성’으로 상징하고 ‘여성적인’ 것이 혁명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역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90년대가 80년대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분명 90년대는 80년대와는 다른 가치를 향해갔다. 80년대와 결별하며 ‘욕망’에 솔직한 쪽으로 향하거나, 80년대의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멀어졌지만 90년대 자본주의의 향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하지는 않는 입장도 존재했다. 명우는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의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서 “더러운 부르주아”의 자서전을 대필해주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은림은 여전히 울산의 공단에서 노동운동을 계속한다. 90년대가 되었어도 노동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힘을 보태려 한다. ‘학출’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삶을 계속 지탱하면서 미련할 만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다. 김은하는 “계산적 합리성이나 논리성과 거리가 먼 은림의 열정적 면모는 ‘여성적인 것’이 곧 ‘혁명적인 것’임을 역설한다”고 분석하고 “여성

47)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22쪽.

적 감수성은 비과학성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도덕감정이”라고 논평한다.⁴⁸⁾ 혁명이 ‘합리성’이나 ‘논리성’의 산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혁명은 ‘낭만성’을 내포하고⁴⁹⁾ 이상주의 역시 낭만성을 내포한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혁명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산적 합리성이나 논리성’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즉 ‘감수성’을 ‘여성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공지영의 텍스트는 사실상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공지영의 텍스트 자체에서 유추되는 해석이지만 김은하 역시 공지영의 젠더 이분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은림의 열정적 면모”나 “감수성”은 이후 ‘모성’과 연결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명우의 전부인인 연속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은림을 심하게 모욕한 후에 혼자 남겨지게 된 은림이 보여준 행동은 명우와 연속의 어린 딸인 명지가 누워 있던 자리에 손을 넣어 명지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는 명지를 안고 연속과 함께 방을 나가면서 은림을 바라 본 명우의 시선과 서술에 의해 전달된다. 은림은 명우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사산한 경험이 있다. 그런 은림이, 연속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우가 딸 이름에 자기 이름 한 글자정도 넣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말과, 연속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명지가 누워 있었던 자리에 손을 넣어보는 행동 등은 ‘감수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언행이다. 이는 ‘여성적인 것’을 ‘혁명적인 것’으로 치환하면서 그 ‘여성적인 것’에 ‘모성’을 끼워 넣는, 즉 젠더 이분법과 모성신화를 의구심 없이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공지영의

48) 김은하, 위의 글, 323쪽.

49) 작가 박경리는 그의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에서 강극과 용빈의 대화를 통해 ‘혁명’과 ‘낭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혁명은 로맨티시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리자가 장악하는 거죠. 로맨티시스트는 중국에 가서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맨티시스트는 또 일어나죠. 어떤 세대의 가름길에서.”

“그렇지만 혁명가들이 화나시겠어요. 로맨티시스트라니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로맨티시즘은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마로니에 북스, 2013, 403쪽.)

텍스트가 황석영의 텍스트와 공유하는 젠더 인식이라고 보인다.

반면 황석영이 『오래된 정원』에서 남성인물을 혁명의 중심부에, 여성 인물을 혁명의 주변부에 두고 그 여성인물로 하여금 ‘당신만 있으면 상관 없다’고 말하게 하면서 계급의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여성을 희생시킨 일면을 보았다면, 노동현장에서 빈곤과 질병과 싸우며 마지막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동지들에게 헌신했던 여성인물을 형상화 한 공지영의 서사는 계급과 젠더 문제를 다 담으려 했다. 이는 공지영이 황석영과 달라지는 지점이다. 실제로 1980년대에 여성들은 결코 혁명의 주변부에서 아버지와 애인의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시위현장에 함께 있었으며⁵⁰⁾ 중산층 여대생들은 그들의 선택받은 환경에서 뛰쳐나와 위장취업 등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각종 학회와 토론에서도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았다. 즉 1980년대는 “대안적 여성주체의 등장”이 본격적

50)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 소장은 1987년을 열었던 남영동의 시위가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증언한다. “1월22일, 그러니까 아직 박종철의 죽음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던 때, 군부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던 때, 감히, 남영동 대공본실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있었다. (...) 인원은 30명을 넘었고, 시위대는 모두 여성이었다. 남영동 금성극장 주변 다방과 골목에 숨어있던 그들은, ‘우리가 상주’라는 뜻에서 삼베로 만든 수건을 쓰고 “박종철은 내 아들이다”로 시작되는 성명서를 뿌리며 “박종철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곧 그들을 둘러쌌고, 일부는 연행되고 일부는 주변 골목으로 쫓겨가 연좌시위를 계속했다. 이것이 닷새 전 민가협에 이어 박종철의 이름을 남영동에서 부른 가두 대중 시위였다. 이날 시위는, 지금은 고인이 된 여성운동가 이우정, 박영숙이 앞장섰고, 안상남, 김희선을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교회여성연합 여성들이 함께했다. 시위는 불과 몇십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들의 용기는, 공포로 얼어붙은 시대를 깨웠고, 6월항쟁의 불을 붙인 불씨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불씨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 대개 여성들이 한 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보지 않는다’.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마치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삭제되곤 한다. 수많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여성은 2%가 채 안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삭제되어 보이지 않던 고리를 복원해야 역사라는 거대한 줄이 온전하게 완성된다. (...) 며칠 전, 2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젊은 여성이 영화 <1987>을 보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여성에게 대답했다. 여자들은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정영훈, 『1987년을 열었던 남영동의 시위』, 『경향신문』, 2017.01.22.

으로 이루어진 여성사의 빛나는 시기”⁵¹⁾이기도 하다. 공지영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양상들이 묘사되어 지워진 여성서사를 복원하려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 고착되어 있는 것과 모성신화를 문체의식 없이 수용한 것은 황석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비겁하고 이기적인 남성인 물들을 ‘연민’으로 포용하고 그것이 때로 자학적인 태도로 연결되는 것은 다음 절에서 분석할 최윤의 텍스트들과 다른 점이며, 과격할 정도로 단호한 현재 ‘영 페미니스트’ 작가들과도 분명 다른 젠더 의식을 보여준다.

3.2. 후일담 서술 양식의 다양화

: 폭력과 젠더, 혁명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지성적 고찰-최윤

여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이 80년대 운동권의 가부장성과 이분법 안에서 배제된 여성의 목소리의 가청도를 높인다고 가정할 때 여성작가가 구축한 젠더 지평은 남성작가의 것과 분명 다르다. 그런데 여성작가가 구축한 젠더 지평도, 유사성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지만, 다양한 차이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여기서는 최윤의 소설들을 고찰하여 여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이 구축한 다양하고 폭넓은 젠더 지평을 구체적으로 논하려 한다. 앞서 논한 공지영 외에도 많은 여성작가들이 젠더정치학의 시각에서 1980년대를 서술했으나 특히 최윤의 소설들을 분석대상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최윤 텍스트에서의 서술기법과 인물형상화 방식에 다층적인 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윤은 등단작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⁵²⁾에서부터 80년 광주를 그 어떤 작가와도 차별화되는 독특한 서사기법으로 형상화 했으며, 『회색 눈사람』(1992)에서 차가운 절제미가 돋보이는 지적인 후일담 서사를 선보였다.⁵³⁾ 이를 젠더의

51) 김은하, 앞의 글, 332쪽.

52) 공지영이 『동트는 새벽』으로 등단한 해도 1988년이다.

53) 김은하는 최윤의 『회색 눈사람』을 “1990년대가 민주주의를 향한 바리케이트 이면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간임을 보여 주는 기념비적 텍스트”이자 “꽃도 십자기도 없이 잊힌 이들에 대한 헌사”라고 논평한다. 『살아남은』

관점에서, 앞에서 논한 작가들의 인물형상화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려 한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발표된 시점은 1988년⁵⁴⁾이다. 1987년의 거대한 저항의 물결이 직선제 개헌을 이루어냈으며 정권교체는 이루지 못한 좌절과 분열 속에서 한편에서는 올림픽의 열기가 한편에서는 5공 청문회가 공존했던 시기였다. 80년대의 2트머리에서 80년 5월 광주를 묘사하는 이 소설은 ‘광주’를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자신을 따라온 ‘실성한’ 소녀를 확대하다가 소녀가 그렇게 된 이유를 추측하는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소문의 도시”라는 서술로 암시될 뿐이다. 특히 소녀의 분열적인 내적 독백은 그날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기에 더 강력한 수사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녀의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통해, 모든 의미가 비어버린 실성한 웃음을 통해, 흔적이 없이 지워져버린 인격의 모든 부채를 통해서 남자는 점점 더 자세히, 점점 더 강한 증폭과 깊이로 그녀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소문의 도시 전체를 보았다.⁵⁵⁾

그날은 낮은 파도들이 춤추는 날이었는데 푸른 양미간에 문힌 얼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밀려갔다가 밀려오고..... 엄마는 그 속에 뛰어들어갔어 (...). 파도가 더 빨리 사방으로 몰리고.....흩어졌다가....다시 모이고....그리고 또 검은 장막.⁵⁶⁾

자들의 드라마-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1~312쪽.

54) 1978년에 먼저 평론가로서 등단한 최현무는 1988년 『문학과 사회』에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통해 소설가 최윤으로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55)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262쪽.

56) 위의 책, 220쪽.

80년대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독자는 “낮선 파도”가 시위대의 물결임을 유추한다. 그 속에 뛰어난 엄마에게 닮은 비극을 또한 독자는 상상한다. 그 비극이 소녀로 하여금 “모든 의미가 비어버린 실성한 웃음”을 짓게 했음을 추측하면서 독자는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비극의 참상을 직접적인 서술로 접할 때와는 다른 정서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체험의 파장은, 독자의 적극적인 해석과 상상으로 인해, 직설적인 해설과 감정의 직접적인 토로를 접했을 때보다 훨씬 울림이 큰 것이 될 수 있다. 최윤의 시적이고 비유적인 언어의 사용이 가져오는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폭력에 대한 보다 중층적인 사유까지 나아가는데, 80년 5월 광주가 한 독재자의 흉포한 성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과 폭력의 연쇄를 증언한다. 또한 여기서 ‘폭력’과 ‘젠더’의 관계를 추론하게 한다.

파랑새 한 마리가 내 가랑이 사이로 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왔지. 수천 마리가 덤벼보라지. 나는 절대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거나 빌거나 하지 않을 거야. 강가에서도 여러 번 파랑새가 부리를 들고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 지금 내 몸속에는 수십 마리의 파랑새들이 제각기 동지를 짓고 살고 있어.⁵⁷⁾

소녀의 몸속에 들어온 “수십 마리의 파랑새들”이 ‘강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는 독서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국가폭력에 의해 유린된 소녀의 몸은 이후 소녀를 도와준 이들과 소녀를 배척한 이들 모두로부터 또다시 유린되었다. ‘폭력’과 ‘남성성’과의 상동성은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에서도, 20세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언급되었으나 최윤의 텍스트에서 제시된 ‘폭력’과 ‘남성성’과의 상동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훨씬 날카롭고 집요하다. 또한 황석영이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 기반을

57) 위의 책, 237쪽.

두고 ‘모성’과 ‘헌신’의 ‘여성성’을 21세기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남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여성상을 제시한 반면, 최윤의 텍스트는 ‘폭력’의 ‘남성성’이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를 파괴하는 시대가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소녀를 찾던 이들은 끝내 소녀를 찾을 수 없었고 소녀는 공동체로부터도 개인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소녀를 강간하고 학대하다가 소녀를 돌보게 된 남자는 소녀의 실종에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그런 남자를 묘사하는 서술태도는 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일정 부분 견지하면서도 그의 비행을 ‘시대의 한계’로 무마하지 않는다. 운동권 남자들의 이중성과 비겁함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감상적인’ 이해와 연민과 애정 어린 서술태도를 보였던 공지영의 텍스트와도 여기서 갈라진다. 즉 기존의 젠더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가치지향점을 이동한 황석영의 텍스트와도, ‘여성적인 것’을 ‘혁명적인 것’으로 규정한 공지영의 텍스트와도 다른 젠더 지평을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서술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후일담 소설인 『회색 눈사람』(1992)에서 보이는 젠더적인 시각 역시 이전까지의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과 공유하는 지점이 있지만 최윤 특유의 지적인 통찰이 바탕이 된 서술방식과 젠더적인 시각으로 후일담의 젠더 지평을 확장한다.

『회색 눈사람』의 서사는 우연히 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강하원이 신문의 짧은 기사를 통해서 김희진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시작된다. 여성 인물 강하원의 시선과 1인칭 서술에 의해서 서사가 전개되는 『회색 눈사람』에서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혹독한 겨울에 대한 처절하고도 생생한 묘사조차 시리고 청명하다. 이모집에서 살면서 이모부의 병원비를 위해 판 땅값을 훔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여 상경한 하원은 “어딘가에서 주운 다리미를 얻어 책으로 받쳐놓고 그 위에도 싸구려 빵조각을 데워 끼니를 때”⁵⁸⁾우지만 “우리

58) 최윤, 『회색 눈사람』, 문학동네, 2017, 14쪽.

의 겨울은 모든 병원균이 단번에 소독될 정도로 순수하게 차갑고 투명했다”⁵⁹⁾고 회고한다. 이때 ‘우리’는 하원과, 하원에게 당시 이적단체였던 문화혁명회의 학습 자료와 논문들을 교정보는 일자리를 준 27세의 대학 재학생 ‘안’과 그 동료들이다. 눈이 많이 온 날, 하원이 살던 집의 주인은 하원에게 연탄재를 집 앞 골목에 으깨어 놓으라고 말하지만 하원은 연탄재조차 남아 있지 않은 가난한 고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불이 튼 어린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⁶⁰⁾는 것을 보고 안이 그녀에게 돌려 주었던 목도리를 회색 눈사람에게 돌려준다. 이렇듯 『회색 눈사람』은 운동권의 중심부에 있는 ‘안’과 그 주변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을 좋아했던 하원과의 애정의 서사를 구축하는 듯했으나, 강하원과 김희진 두 여성의 우정에 대한 서사로 향해 갔고, 혁명의 주변과 중심에 있었으나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여성 혁명가들에 대한 증언의 서사가 되었다. 하원은 여권을 만들기 어려웠던 시절, 미군 운전병과 결혼하여 미국에 간 어머니가 보내준 초청장 덕분에 여권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 조직의 중심부에 있었던 김희진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안은 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김희진은 강하원이 되어 출국한다. 당시 안은 희진을 일컬어 “자신의 몸과도 같은 사람”⁶¹⁾이라고 했으나 미국으로 간 희진은 이십 년 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쇠약에 의한 아사”⁶²⁾로 사망한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었고 무연고자였다. 반면 검거되어 구속되었던 안은 시대가 바뀌자 운동의 이력을 바탕으로 민중예술가의 타이틀을 획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할 권력을 얻었다.

김희진을 회고하는 강하원의 회고적 서술은 희진에 대한 애도에서 멈추지 않는다. 혁명의 중심부에 있었던 ‘여성’이 어떻게 공식적인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고 배제되고 삭제되는지를 증언함과 함께 여성이 다른 여

59) 위의 책, 18쪽.

60) 위의 책, 37쪽.

61) 위의 책, 46쪽.

62) 위의 책, 9쪽.

성에게 가지게 되는 선망과 동경의 섬세한 심리묘사를 관찰과 통찰의 지적인 서술태도로 전개한다. 안과 함께 문화혁명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희진은 첫 만남에서부터 하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안과는 다른 맥락에서 하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김희진은 그때 상 저편에 앉아 있던 얼굴과는 성질이 다른 피로를 내보이고 있었고 그 얼굴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웬만한 피로로는 꺼지지 않게끔 질리게 가꾸어온 느낌을 주는 특수한 빛이 있었다. (…)

그때나 그후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나는 늘 한 가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자태가 내게 야기시키는 그 어떤 것을 꼭 말로 그려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⁶³⁾

김희진은 강하원에게 경이로움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증언’과 ‘기록’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안의 목소리와 안과 함께 하는 일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했던 하원이었으나 결국 하원에게 삶의 의미와 사명감을 부여한 이는 희진이다. 희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하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희진은 안과 함께 조직과 혁명의 중심에 있었으나 안과 대조적으로 희진은 삭제되고 지워졌으며 심지어 안조차도 희진을 돌보지 않았기에 희진은 이국에서 스러져갔다. 문화혁명회가 해체된 이후 하원은 기억을 되살려 자신이 교정을 봤던 원고들을 복원했다. 희진이 출국 전 하원에게 주고 간 희진의 원고와 함께 하원은 자신이 복원한 원고들을 안에게 전달했고 안은 그것들 중 일부를 지면에 발표했다. 하원은 문화혁명회가 해체된 이후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맞본 희망의 색깔을 주변과 나누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도”⁶⁴⁾ 한다. 지역사회의 이름 없는 운동가인 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죽은 희진을 또 다른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만 볼 수

63) 위의 책, 47쪽.

64) 위의 책, 53쪽.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남성중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연대감은 남성들의 연대를 훨씬 압도한다. 강하원과 김희진 둘 다 남성들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고, 하원과 희진이 남긴 기록들은 ‘안’의 것으로 탈바꿈되었다. 하원만이 희진을 “상처와도 같은 작은 빛”⁶⁵⁾으로 기억한다. 『희색 눈사람』은 혁명의 시대에 그 자리에서 분명 함께 했지만 기록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서사를 증언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들 간의 우정과 연대감을 자기연민이나 감성성을 배제한 채 차갑게 승화된 뜨거움으로 형상화 했다.

4. 결론

후일담 소설들은 다양한 서술방식과 서술태도로 전개되지만 불의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후일담 소설들의 서술방식과 서술태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후일담 소설들의 다양한 젠더 지평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990년대에 쓰인 후일담 소설들과는 달리 21세기 초입에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며 ‘수컷들의 전쟁의 시대’였던 20세기와 작별하고 모성과 ‘여성성’을 새로운 세기의 가치로 정립하려는 서술태도를 보여준 『오래된 정원』은 거시적으로 혁명의 시대를 성찰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 젠더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전통적인 여성상에 고착되어 있는 한계를 보였다. 80년대 여성들은, 『오래된 정원』의 중심인물인 한운희와 달리, 실패한 혁명가인 아버지에게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혁명가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광장과 토론장과 감옥에서 남성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그 시기는 여성주체에 대한 자각에 눈을 뜬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황석영이 이해하고 형상화 한 ‘여성’은

65) 위의 책, 55쪽.

아버지에 대한 집착과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세기의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고착화시키며 ‘형제들의 공화국’의 질서를 재정비하는 데 여성이 밀거름이자 희생양이 되는 것을 예찬할 뿐이다. 이는 남성판타지에 다름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80년대에 탄생하게 된 ‘시민’은 남성시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시민들 역시 “광주 항쟁의 충격을 경험하면서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도덕이라고 할 모성성/여성성 획득을 거부하고 저항적 정치 주체로서 자기를 정체화한 혁명적 개인들”⁶⁶⁾이라고 볼 때 황석영이 이상사회로 제시한 ‘모성’에 기반을 둔 이상향은 기실 가부장제를 굳건하게 지탱하면서 계급의 전복만을 꿈꾸는 것이었다. 또한 ‘한윤희’의 고백적 서술은 실존하는 여성들의 내면을 표상한다기보다는 남성작가의 환상이 만들어낸 여성 ‘이미지’에 머물러 버리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반면 공지영과 최윤의 후일담 소설들은 혁명의 시공간에 분명 존재했으나 지워진 여성들을 조명한다. 남성들이 운동의 이력을 내세우며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기연민과 회한에 사로잡힐 때조차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가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인물들을 전경화한다. 즉 왜곡되거나 지워진 여성혁명가들을 기억하고 증언하며 운동권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 속에서 ‘대의’라는 명분에 치여서 주변부로 밀려난 젠더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다. 하지만 공지영의 텍스트와 최윤의 텍스트는 인물형상화 방식이 다르고 서술태도가 달라서 전반적인 텍스트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며 이로 인해 각각의 텍스트에서 구축한 젠더 지평도 상당히 다른 것이 되었다. 공지영 텍스트의 여성인물들은,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기까지 한 남성인물들을 이해하고 연민하며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양상의 후일담 서사구조를 공지영은 계속 변주하여 재생산한다. 이때 여성인물들은 사랑에 약해지거나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최윤의 텍스트는 국가폭력과 ‘남성성’의

66) 김은하, 앞의 글, 332쪽.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파괴하는 폭력의 속성을 고발하면서 냉철한 서술태도를 견지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애정의 서사보다는 여성들 간 우정과 동지애를 구현한다. 여성들 간 우정과 사랑의 서사야말로 혁명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묘사한 서술태도는,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한국사회는 일상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혁명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젠더의 문제는 핵심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서 여성들의 연대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후일담이 역사를 과거완료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후일담의 젠더 지평 역시 현재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계속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공지영, 『고등어』, 웅진출판, 1994, 7~287쪽.
 _____, 『도가니』, 창비, 2009, 7~343쪽.
 최 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 지성사, 1988, 205~289쪽.
 _____, 『회색눈사람』, 문학동네, 2017, 7~55쪽.
 황석영, 『오래된 정원』 상, 창비, 2000, 7~331쪽.
 _____, 『오래된 정원』 하, 창비, 2000. 5~319쪽.

2. 단행본

- 권보드레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0~336쪽.
 박인혜,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 한올아카데미, 2011, 7~135쪽.
 이종문, 『황석영, 연민과 구원의 문학』, 국학자료원, 2017, 5~247쪽.

3. 논문

- 강용훈, 『현대문학과 새로운 담론 : 황석영 장편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의미 - 『장길산』과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4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년, 259~283쪽.
- 권경미, 『지식인 주체의 생존 현실 인식과 저항의 서사 -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27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207~235쪽.
- 김은하, 『386세대 여성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3~78쪽.
- _____,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호, 상허학회, 2017, 15~49쪽.
- 김정은, 『‘광장에 선 여성’과 말할 권리』, 『여성문학연구』 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67~313쪽.
-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힌 여성의 서사들』, 『여성문학연구』 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41쪽.
- 김지미,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토리텔링의 전략』,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7~39쪽.
- 박은태·고현철, 『공지영과 김영하의 후일담 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44집, 한국문학회, 2006, 451~484쪽.
- 박은태, 『1990년대 후일담 소설의 문학사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6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08, 337~367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6, 409~454쪽.
- 전해림, 『공간의 의미와 시대의 재해석 -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론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016, 131~149쪽.
- 정영훈, 『1987년을 열었던 남영동의 시위』, 『경향신문』, 2017.01.22.

-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대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87~218쪽.
- 허영재, 『독일의 신주관성 문학과 한국의 후일담 문학-페터 슈나이더의 『렌즈』와 공지영 작품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16권 2호, 한국독일어문학회, 2008, 179~204쪽.

Abstract

The Gender Prospect of Reminiscences

Lee, Chae-won

This thesis discusses reminiscences based on the view of Gender politics. The 1980s in Korean modern history marked the rapid growth of democratic consciousness and was a period of desire for freedom and equality. But even under the revolutionary banner, the patriarchal system and male chauvinism remained solid. In *The Ancient Garden* by Hwang Suk Young, the starting point of ideas is Gwangju in May 1980 but this novel reflects modernity and male - centered violence and finds value in femininity in the 21st century. But this novel has the limitations of being stuck in traditional gender dichotomy and has reduced a variety of women to one image. And that one image is the Electra Complex, a kind of male fantasy. Also this text shows an excessive obsession with motherhood and overlooks that motherhood is also an ideology.

Meanwhile in the novels by Gong Ji Young, the reminiscence narrative structure is transformed and repeated. This adheres to optimism about the revolution and trust in colleagues and values of the time. Also the texts testify to women who have remained unnamed on the field until the end and contain both class conflict and gender issue. This means restoring the voice of women deleted or distorted from the history of men. But the novels by Gong Ji Young also has the limitations of being stuck in gender dichotomy. Also her texts contain many female characters who repeatedly

embrace men who are cowardly, weak, and violent. On the other side, Choi Yoon's novels use a very different narrative technique to describe the 1980s. Poetic and suggestive narrations and divisive characterization make the violence of the time more tragic. This leads to deep reasons for national violence and personal violence, masculinity and violence. In addition, they show the modern learning and inventive step of connecting the friendship and love of women with the revolution. Above all, it is meaningful that the wide range of gender prospect has spread.

Key words : reminiscences, gender prospect, father's law, the chain of violence, revolution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